남원시 부정수급 환수 최고 실적

지난해 하반기 12억2000만원…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액

남원시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실적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남원시는 2022년 하반기 환수한 보조금이 12억2000만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 부정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의 환수·제재 부가금 처분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 23일자로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 남원시가 환수한 보조금은 12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투자촉진 11억9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20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75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순이다.

남원시의 실적은 '청렴노력도' 가점 대상으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현재 남원시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반부패 법령 교육, 보조사업 등 직무 연계 청렴교육, 사전 컨설팅 제도, 익명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보조사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지도·관리와 선제적인 자체 감사·조사 활동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환수 보조금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성근 남원시 감사실장은 "정부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감사·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의 제도적인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경영혁신 일자리창출공헌대상' 수상

청년창업 패키지 사업 등 모범

이학수(왼쪽 다섯번째) 정읍시장이 지난 27일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 공헌 대상을 수상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가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 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경영혁신 일자리창출공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재)국제언론인클럽이 공동 주관했다.

정읍시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을 위한 일자리정책추진단, 일자리정책과 등 과감한 조직개편을 비롯해 취업중개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취업활동 지원, 내실 있는 청년일자리 만들기로 창업기반 등을 조성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특히 SK넥실리스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과 안전성평가연구원 전북분소와 협약을 통한 청년발전기금 활용 상생지원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기업유치 시 '지역인재 채용 쿼터제' 요청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일에는 구직자에게는 취업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에게는 지역 내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또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 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공공일자리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써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이 크다"며 "앞으로도 알찬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정읍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노후경유차 1180대 조기 폐차

미세먼지 저감 31억 투입…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등 추진

남원시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추진한다.

남원시는 탄소중립 실현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30억 9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과 'LPG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약 1180대며 LPG 화물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의 지원규모는 각 25대와 3대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이다.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 차량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을 추가해 상한액 내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5등급 해당)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LPG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수 및 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감소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겠다"며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도시농업 예비 전문 강사 31명 배출

정읍시가 도시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31명의 도시농업 예비 전문 강사를 배출했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열고, 도시농업 관련 전문지식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은 도시 텃밭·정원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을 선도하는 도시농업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첫 강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도시농업 기반 조성과 토양의 이해, 작물생육과 환경, 텃밭 정원 만들기, 병해충관리, 치유농업의 이해, 친환경 농업 등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을 병행했다.

전정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 교육을 수료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하는 '도시농업 관리사' 국가자격증 취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관련 교육과 해설, 지도, 기술 보급 등 도시농업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세계가 인정한 7가지 '고창의 보물'

군, 다음달 1일 유네스코 등재 행사

고창군이 다음달 1일 오후 7시30분 고창읍성 광장에서 '유네스코 7가지 보물 등재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기념식은 병바위 등 지질명소 13곳이 세계지질공원 인증과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라 국내 유일 유네스코 7가지 보물을 보유한 세계유산도시를 기념하고 세계유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린다.

기념행사는 고창 대표 국악뮤지컬인 '이팝:소리꽃' 공연과 7가지 보물과 관광객, 군민이 함께 어울러지는 대규모 축하 퍼포먼스, 우리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씨의 축하공연, 국내 최정상 크로스오버 그룹인 포레스텔라(Forestella)의 축하공연 등이 준비됐다.

행사는 고창군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서 개최되는 만큼 세계유산과 더불어 고창읍성을 홍보하고,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고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고창군의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알리고 나아가 고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영광스런 자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데이터 기반 재난 안전 대응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 선정…하천·강수량 정보 등 분석

고창군이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창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한 안전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해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모델' 분야에 국비 22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 관심도와 행정수요가 높은 ▲정보공개 청구데이터 분석모델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모델 ▲공공의료서비스 취약지 분석 3개 분야에서 평가가 진행됐다.

'고창군 재난위험 분석 및 대응모델 정립 사업'은 기존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 계획 자료, 하천정보, 기상청 강수량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응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들과 연계 분석을 통해 관련 계획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행정 업무 처리 기반을 일부 마련했다. 앞으로도 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데이터분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